

화정주공재건축조합 20억 성과금 논란

조합집행부 “선수촌 유치 성과... 14명에 1억4천만원 지급”

입주자모임 “추가 부담금 못막고 무슨 성과금...우리가 봉이나”

“재건축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과금 수십억원을 가져간다고요? 조합원이 봉입니까?”

광주 화정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집행부 집행부가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사업의 성과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할 것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시켜 조합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조합원 단체인 입주자모임은 안전 의결을 우려해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을 차단하는 등 집행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25일 화정주공재건축조합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정장도 조합장 등 집행부는 ‘U대회 선수촌 유치’와 ‘선수촌 유치에 따른 사업비용 절감’ 등의 공로에 따라 조합장과 이사 등 집행부 14명에게 1인당 1억4000여만원씩 20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건을 냈다.

이에 반발한 입주자모임은 총회장 임구에서 성과금 지급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부하고, 조합원의 총회장 입장을 저지했다. 이날 총회는 의결정족수(조합원 2863명의 10%인 286명)에 미달한 165명이 참석, 부결됐다.

조합원들이 성과금 지급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2012년 7월 재건축공사사인 현대건설이 추가공사비로 212억원(기구당 1000여만원)을 요구했는데, 집행부는 2년 동안 이를 방치하다 최근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미지 화정힐스테이트입주자모임 위원장은 “조합들이 추산한 결과 1인당 400만원이면 충분하고, 감액과 탕감의 여지가 있는데도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추가부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2년

동안 이를 몰랐다면 집행부의 배임행위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현재 공정률이 52%로 아직 재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시공사와 도급제로 계약해 조합원의 손실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무리한 성과금을 요구한다는 점도 조합원들의 비난을 사

고 있다.

조합의 한 대의원은 “4월 중순 열린 대의원 회의에서 집행부가 대의원들에게 시가 금액에 대한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로 성과금 지급에 대해 찬성, 반대사를 표시하라고 요구했다”며 “조합의 민원처리비를 인건비로 전용해 성과금을 마련하겠다는데, 진정 조합원을 위한 집행부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집행부는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송하서 조합 총무이사는 “집행부가 재

건축 과정에서 U대회 선수촌 유치 등 많은 일을 진행해 이 부분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안전을 통해 조합원에게 확인해 본 것”이라며 “지난 총회에서 부결된 만큼, 6월14일 열리는 대의원회의에서 다시 안전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입주자모임은 대의원 대회 전까지 안전철회를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화정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은 지상 15~33층 35개동, 3726가구의 대단지 규모로 진행중이며 내년 3월 완공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이용될 화정주공재건축아파트. 5월 현재 공정률 52%로 내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급 공채 축소...불안한 고시생

내년부터 단계적 줄여 3년뒤 민간 채용과 5:5

고시생들 “지역출신 불이익·불공정 채용 우려”

정부가 5급 공채(옛 행정고시) 선발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3년 뒤에는 공채 대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대5로 하기로 했다.

또 퇴직공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 기업체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5급 공채 축소 방침에 이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대학 재학생, 졸업생 등 소위 ‘고시생’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세 번째 후속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 등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무원 선발과 관련, 5급 공채(구 행정고시) 선발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 5급 공채 대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정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개방형 공모제 내실화를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직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장기 재직분야의 경우 동일직위 4년 이상의 전보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 기업체 기준을 강화해 현재 3960개 수준에서 1만3043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금 50억원과 연간 거래액 150억원 이상 기업에서 자본금

10억원,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 조건도 강화했다.

정부는 또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안전행정부 세무기능 ▲국가안전처 등 신설 또는 개편 기관장의 지위 ▲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편방안 등은 심도 있는 검토·협의를 거쳐 내주 초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국가안전처에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배분권을 주는 방안은 재민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을 고쳐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의 예산 소관과 집행권까지 모두 안전부에서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재해대책비 집행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결론내렸다.

한편 정부의 5급 공채 축소 발표와 관련 고시 출신 한 공직자는 “경력채용을 한다고 해서 ‘관피아’ 폐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 ‘고시생’들 사이에서는 5급 공채 축소로 로스쿨 제도와 같이 지역 대학 출신 고위공직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경력 채용에 불공정성이 불거질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협뉴스

북한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북한이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천시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의 대회 참가 공식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대회 조직위원회와 협력, 북한 선수단 참가에 따른 사전 준비와 선수·입원단, 응원단의 안전문제, 숙박, 공동 응원 등 북한 선수단이 머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나섰다.

조직위원회는 북한의 참가로 아시아 올림픽평의회(OCA) 45개 회원국 전

체가 참여하는 ‘퍼펙트 아시안게임’ 구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북한이 OCA에 참가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지난 23일 오후 확인했다.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려면 오는 6월20일까지 선수·입원단 규모를 조직위에 공식 통보하고 8월15일까지는 선수·입원단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 게임, 2006년 카타르 도하,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까지 최근 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해 왔다.

/연협뉴스

남약신도시 이전기관 공무원 통합관사 신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5일 “무안 남약 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원활한 정적을 위해 ‘무안 공무원 통합 관사’를 신축한다”고 밝혔다.

이 통합관사에는 전남도청 등 이전 기관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총

사업비 377억원이 투입돼 330세대 규모로 신축된다.

캠코는 최근 ‘무안 공무원 통합 관사 설계 공모전’을 열어 당선작으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2017년 준공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

전남도, 호남고속철 노령·모암터널 안전대책 촉구

“안전진단·구조 보강·재시공 등 안전성 확보를”

전남도가 호남고속철도 공사 구간 중 노령터널(장성군 북이면)과 모암터널(정읍시 입암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감사원이 “노령터널 및 모암터널의 구조를 재검토한 결과 안전률이 0.103~0.643으로 기준치인 1보다 현저히

낮아 구조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터널 상부에 쌓는 흙의 높이를 낮추는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한 바 있다.

〈광주일보 5월 21일자 1면〉

도는 이에 따라 해당 터널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 안전진단, 구조 보강, 재시공 등 터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

적으로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준영 도지사는 “대형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은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앞으로 10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견고하고 튼튼한 구조물을 시공토록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호남고속철도는 충북 오송에서 전남 목포까지 249.1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1단계 구간인 충북 오송과 광주 송정 구간을 공사를 완료해 내년에 개

통할 예정이다. 나머지 2단계 구간은 올해 4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실시설계 등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다.

한편 감사원의 요구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터널 상부에 쌓는 흙의 두께를 당초보다 1.5~2.0m 줄여 시공했고,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 방법을 적용한 결과 안전률 1.08~1.16을 확보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칙 제 131226-중-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상무지구 5번 / 연평동 1번 /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

2010년 6·2 지방선거
저작권협회 추정
로그송제작
“**전국 1위**”

2,000곡을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6개 녹음실 보유)

선거로그송
선거차량
UCC로그송
선거홍보영상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1위 선거전문 기획사

BIG 기획
062-651-7411, 010-5022-7400